

# 5·18 계엄군, 민간인 향해 수류탄 던졌다

계엄상황일지에 '조선대 앞 고속버스에 투척, 민가 들이받아' 기록  
군 자료엔 사망자 12~21명...수류탄 실제 사용 은폐·조작 드러나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를 유혈진압했던 계엄군이 민간인이 탄 고속버스에 수류탄까지 투척했다는 기록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계엄군이 수류탄을 휴대했다는 사실은 각종 군 문서 등으로 확인됐지만, 구체적으로 사용 장소와 시간이 적힌 군의 문서가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5·18전문가들은 수류탄 사용에 대해 계엄군이 광주시민을 무차별 학살할 목적을 가지고 광주에 투입된 증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2일 광주일보가 입수한 계엄사령부의 계엄상황일지를 살펴보면 '1980년 5월 21일 새벽 00시36분, 조선대 정문, 3000명이 차량 3대로 정문 돌파 시도. 그 중 1대는 답을 들어받고 정지. 고속버스 1대 수류탄의 저지로 민가를 들이받고 정지. 폭도 3명 검거'라고 적시돼 있다. 수류탄을 진압에 사용한 부대는 당시 조선대에 주둔했던 7

공수특전여단이다.

7공수여단은 앞서 '00:00 조선대 전방 200m 폭도와 대치', '00:30 정문(2중으로 2개), 후문(1개)에 차단기 설치' 등 상황보고를 남겼다. 이로 미뤄 계엄군은 자신들의 무자비한 진압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잇따르고 규모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자 수류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같은 시각 11공수여단은 '야간에 폭도들이 흉기 및 차량 탈취, 도청 공격. 조선대에서도 4회에 걸쳐 약 3000명의 폭도가 공격'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같은 날 광주역을 방호하던 3공수여단은 밤 11시부터 시민들의 봉쇄를 뚫는 작전을 감행,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이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 광주역 앞에서 총격에 의한 사망자가 발생하자 광주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고, 조선대와 광주역에 집결한 계엄군을 향한 차량 시위가 자주 일어났다.

계엄상황일지에는 수류탄 사용에 대한 구체적 피해상황이 누락됐지만, 군 문서 등에 따르면 수류탄 희생자는 최소 12명에서 최대 21명으로 추정된다.

수류탄에 의한 민간인 사상자 현황은 1981년 5월22일 국방부 군사연구소에서 발행한 '소요진압과 그 교훈' 자료집과 1982년 육군본부가 발행한 '계엄사(戒嚴史)'에 등장한다. '소요진압과 그 교훈'에 나온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항쟁 기간 민간인 164명이 사망했다고 나와있다. 국방부는 이 가운데 수류탄 파편 등 미상의 총격에 의한 사망자가 21명이었다고 사인(死因)을 별도 분류해 놓았다.

'계엄사'에서는 '광주사태의 결과로 민간인이 162명이 사망했다'고 적고 있다. 시신을 부검해 사인을 규명한 결과 수류탄 파편상은 12명이었다.

하지만, 계엄사에서는 수류탄 희생자 12명이 시위대의 오발사건으로 발생했으며, 계엄군은 수류탄을 투척하거나 사용한 일이 전혀 없었다고 기록했다. 군 전문가들은 여러 자료로 미뤄 이같은 기록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조작적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보안사령부가 작성한 '광주사태시 계엄군 실탄 사용현황'에 따르면 항쟁 기간 계엄군이 사용한 수류탄은 총 194발이다. 일반적으로 세열·연막·화학 수류탄으로 구분되는데, 정확히 194발이 어떤 종류의 수류탄인지는 구분돼 있지 않다.

군 기록 대부분이 왜곡됐고 그동안 수류탄 오발사건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증언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엄군은 수류탄을 사용했고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전남대 5·18연구소 전신)이 1990년 편찬한 '광주5월18일민주항쟁사료전집'에는 5월27일 옛 전남도청 진압작전 때 계엄군은 각 사무실에 진입하기 전 수류탄을 던져놓고 M-16 소총을 연발로 쏘면서 진압했다는 증언도 실려 있다.

한 5·18 연구자는 "헬기 기총 소사를 포함한 실탄 사용과 수류탄 사용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계엄군은 진압 행위를 넘어 광주시민을 전제로 전쟁을 벌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주철현 전 여주시장·공무원 상포지구 특혜 의혹 무혐의

주철현 전 여주시장과 공무원 등에 게 제기된 돌산 상포지구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시민단체로부터 직무 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주 전 시장과 여주시 공무원 등 4명에 대해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민단체인 여주시민협은 지난 4월 10일 개발업체 대표 김모(48)씨에게 돌산 상포지구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관련 공무원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준공 인가가 여주시장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부실 공사라는 이유만으로 직무 유기가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개발업체 대표 김씨는 지난 4월 25일 회삿돈 3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여주시 돌산읍에 조성한 청포매립지 개발사업은 1994년 모 토권이 조건부 승인을 받아 준공했으나 20년이 넘도록 진척이 없는 채 지부진했다.

2015년 김씨의 개발업체가 사업을 시작한 뒤 여주시가 인·허가 과정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5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산월동 봉산유치원 교실에 모닝 차량이 돌진해 교실 안이 아수라장이 됐다. (광주119특수구조대 제공)

## 유치원 수업 중 승용차 돌진 '아찔'

광주서 원생 등 19명 타박상

승용차가 도로를 벗어나 수업중이던 유치원 교실을 달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사고 차량의 앞 부분이 교실 안으로 들어간 뒤 멈춰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5일 광주광역시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

시 35분께 광주시 광산구 산월동에서 김모(여·41)씨가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가 봉산유치원 외벽과 충돌했다. 이 사고의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가 창문을 뚫고 유치원 안으로 들어왔다.

사고 당시 유치원에는 원생 19명이 수업 받고 있었으며, 이날 사고로 원생 17명과 교사 1명, 자원봉사자 1명 등이 깨진 유

리 조각에 맞아 타박상 등을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음주운전을 하지않은 김씨는 이날 유치원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에서 나와 좌회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엑셀레이터가 고장나 사고가 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운전미숙과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운행기록장치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원에 의뢰할 예정이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 강진 여고생 사망사건 초동 수사 미흡 현실판 '살인의 추억' 될 뻔

실종신고 받고도 소극적 대처  
최고 간부 주술적 방식 동원  
과학수사 대신 고전방식 '눈총'  
저인망식 수색에 현장 훼손도

강진 매봉산 정상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고생 이모(16)양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특히 흉악범죄 가능성이 제기됐음에도, 대규모 수사 인력 투입을 미루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해 시신이 신원확인조차 불가능한 부패 상태로 발견되는 결과를 자초했다. 실제 이양의 시신은 타 경찰청의 지원을 받아 뒤늦게 투입된 체취견이 실종 9일만에 찾아냈다.

이 과정에서 이번 사건을 진두지휘한 경찰 최고 간부는 실종된 이양을 찾았다며, 이양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자는 등 주술적 방식까지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안팎에서는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범인을 잡기 위해 각종 비과학적 수단을 동원했던 경찰의 시대착오적인 모습을 연상케 한다고 지적한다.

5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강진경찰은 이양 실종신고를 17일 새벽 12시 57분 접수받고, 새벽 1시20분경부터 여성 청소년계, 강력팀 등 경찰 20여명을 투입해 용의자 김모(51)씨의 집, 식당 등을 수색했다.

강진경찰은 이날 오전 6시 15분께 집 근처 공사장에서 목을 매 숨진 김씨를 발견한 뒤 강력범죄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자체 소규모 인력만 투입해 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특히 이날 112신고 접수 직후 이양 휴대전화의 신호 추적을 통해 강진군 도암면 지석리 매봉산 인근에서 마지막 신호가 끊긴 점을 확인했지만, 해당

장소에 이날 오후에야 나주경찰서 소속 기동대 1개 중대(80여명)와 수색견을 투입했다. 경찰은 또 사건 초기 수색보다는 인근 CC-TV 분석에 큰 기대를 걸고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용의자인 김씨가 CCTV가 없는 동선을 주로 이용하면서 이마저도 무용지물이 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만인 지난 18일 언론에 관련 내용이 보도된 이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자, 20일부터 부랴부랴 타 경찰청의 지원을 받아 열감지 장비를 갖춘 헬기와 체취견 6마리 등을 투입했다. 또 21일에는 경찰청 지원으로 수색 인력을 1000여명까지 보강했다.

하지만, 투입된 경찰 1000여명이 과거 수사기법인 길이 1m 경찰봉 등으로 일일이 풀숲을 뒤지는 저인망식 수색방식에 치중하면서 실종자를 찾기는커녕 사건 현장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용의자 김씨의 범행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단 한건도 확보하지 못한 채 실종사건이 장기화되자, 경찰 고위 간부는 이양의 사진을 품고 잠자리에 드는가 하면 일부 경찰은 '무당을 불러 굿을 하자'는 율령을 동원했던 경찰의 시대착오적인 모습을 연상케 한다고 지적한다.

한 강진군민은 "경찰 수사가 더디지면서 전국적으로 강진이 범죄의 도시로 왜곡되고, 주민들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숨진 이양에 대한 정밀 부검과 유류품 등을 감정한 결과, 용의자 김모씨를 피의자로 확정할 만한 결과물이 나왔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은 6일 오전 11시 강진경찰서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여성 흠쳐보려 손가락 넣어 남의 집 창문 연 60대 '주거침입죄'

○···법원이 20대 여성을 흠쳐보려 위해 다른 사람 집 안쪽으로 손가락을 넣어 창문을 연 60대에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

○··5일 대전지법(형사 11단독 김동희 판사)에 따르면 A(62)씨는 지난해 9월 10일 밤 9시경 빌라 주차장에서 B(여·27)씨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

려고 B씨 침 창문을 손으로 열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했다는 것.

○··김동희 판사는 "피고인이 창문을 여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인 손가락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고, 당시 창문 바로 옆에 있는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상당히 놀랐다'고 진술했다"며 "비록 신체 일부만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주거의 평온이 깨졌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판시.

# 상가건물 매매 [ 신축 상가주택 ]



□ 월곡시장 2분(일신아파트 · 부영아파트 부근)  
산정공원 바로앞 (코너)

□ 공실 없음 (항시 임대대기)

□ 1층 ★상가 2칸★

□ 2층~3층 (원룸 9개) (투룸 2개)

□ 4층 (최고급 주택)

★ 공원앞 전망최고 ★

보 9천 · 월 600만 (용3억)

▶ 매가 9억5천만

010-7384-7800 010-6670-9800

## 상가매매(수익형)

상무지구 중심구역(12층중 6층 상가)  
롯데마트 앞  
19평 (모든 업종가능)  
보5백 월 40만

▶ 시세 1억  
매가 6천300만

원룸빌딩 매매

- ① 산정동(1층코너 상가) (원룸 15개)(합16개) 월세 600만 ▶ 매가 8억8천
- ② 월곡동 산정공원 1분(1층,상가칸) 2층~4층(원룸12개)(투룸3개) ▶ 매가 8억7천만 (월세 590만)
- ③ 월곡동시장 2분(원룸12개, 투룸2개) 총 14개 (월수익 550만) ▶ 매가 8억4천만
- ④ 전대정문2분 (원룸18개, 안잡1개) 보7천만 월700만 ▶ 매가 12억8천만(용 3억5천만 가능)

010-6670-9800  
062-382-5500